

킹제임스 성경학교 강의 노트(76)

주제: 왕

1.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대한 뜻: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

근거 구절:

"내가 너와 여지 사이에,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,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,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."(창 3:15)

"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.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.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,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."(창 9:26,27)

"이사람(엘리에셀)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,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."(창 15:4)
(창 17:18-21) 찾을 것!!

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:

"유다야,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.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....."(창 40:8-10)

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:

"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서리라. 네 보좌가 영원히 서리라."(삼하 7:16)

다윗의 씨(예수 그리스도)에게 주신 언약:

"내가 나와 택한 자와 한 언약을 맺었으며....."(시 89:3-4, 35-37)

다윗의 보좌에 앉을 미래의 왕에 대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:

"주가 말하노니. 보라, 그 날들이 오리니, 내가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키리니,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리라.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,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.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, 그는 "주 우리의 의"라 불리리라.
(렘 23:5,6)

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:

"이새의 즐거이에서 한 쌍이 나며,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.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,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,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,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."(사 11:1,2)

"그러므로 주께서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.. 보라,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,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"(사 7:14)

"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,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,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....."(사 9 6,7)

누가를 통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신 하나님:

"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, 지혜로 충만하며,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."(눅 2:4)

누가복음 1장에서 성취되는 예언:

"그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" (눅 1:26-33)

"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'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,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,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.'" (눅 1:35)

창세기 3:15의 언약은 "여자의 씨"를 통해서 성취되기로 예언되었다. 성령에 의해 잉태된 마리아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었다. 씨들이 아닌 씨라고 함으로써 한 사람 그리스도이신 것이다(갈 3:10)

예수님의 두 가지 계보:

1. **마태복음의 계보:** 요셉에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계보.(마 1:1-17): 다윗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로 이어지는 계보. 요셉은 아곱의 아들로 나타난다.

2. **누가복음의 계보로서** 마리아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.(눅 3:23-28): 다윗에서 나단이라는 아들로 이어지는 계보.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 나타난다. 이는 요셉이 헬리의 사위라는 말.

*그러므로 누가복음의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이며, 요셉의 계보와 마리아의 계보가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.

한 계보는 나단을 통해서 또 다른 계보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다. 다윗에 헤브론에 거하고 있을 때, 그는 아직 유다 왕에 지나지 않았다. 그때 다윗은 여섯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, 이들 중 세 명은 유아 때에 죽은 것 같다. 나머지 세 아들 중에 암논은 살해되고, 암살범은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다 죽었으며, 아도니아는 왕위를 탈취하려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.

나단이 솔로몬의 형(대상 3:5)이었지만 솔로몬이 계승했다..

마리아가 왕권의 상속자인 나단을 통해서 다윗왕의 직계 자손이 되도록 정하셨다. 요셉은 솔로몬의 왕의 혈통을 잇는 다윗의 직계 자손이었으니, 이 계보에는 코니아(렘 22:24-30)로 불리는 사람, 즉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코냐(마 1:22,12)가 들어있다.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의 저주를 했다:

"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,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."(렘 22:30)

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예수님의 친 아들이 될 수 없도록 하심.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함으로써 예수님은 요셉의 양자가 되게 하심.

그러므로 다윗왕으로부터 직접 이어지고 손상되지 않은 계보를 오늘날 제시할 수 있는 분은, "**유대인의 왕**"으로 태어나셨으며(마 2:2).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(요 19:19),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오실 인자,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.(딤후 2:5)0

다니엘 9:24,25의 예언:

예루살렘을 복원하여 재건하라는 명령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69주가 될 것이라고 기록. 이제 여기 69주(483년)라는 확실한 기간이 있고, 이 기간은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날짜가 계산되는 것이다. 이 도성이 재건축되기 시작한 날은 느헤미야 2:1에서 **"아닥세르세스왕 제 이십년 니산 월의 일이라."**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BC445년 3월 14일을 말한 것. 이 69주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통치자로서 위엄있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AD30년 4월 2일 당일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 당히 아닥세르세스 롱기마누스의 유명한 칙령이 찍힌 날을 알았다면 정확한 날짜는 몰랐을지라도 연도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.

성경에는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뿐만 아니라 태어나실 장소까지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:

"그러나 베들레헬 에프라타야,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나오리라.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, 영원부터였느니라."(미 5:2)

다윗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보좌이다. 그분의 왕국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실제적인 왕국이다. 그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다. 다윗의 보좌는 이천 년 간 비워져 있으나,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시기가 오면(행 15:13-18), 그 보좌는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께 주어질 것이다. 아멘!!!